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7호 【루계 제23159호】 주체99(2010)년 7월 26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와 압록강수산사업소에 새로 건설된 축양장과 굴양식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19일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대계도간석지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바다를 가로지르며 성벽마냥 뻗어간 거창한 제방들과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일망무제한 간석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간석지개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박차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조선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 간석지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최상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이 서해갑문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끝냈다고 하시면서 이 놀라운 기적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견인불발의 의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영웅적조선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이어 개간된 간석지논을 돌아보시면서 농사형편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간석지논에서 해마다 알곡수확고를 높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간석지농사를 잘하기 위한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간석지건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간석지건설을 더욱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대계도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와 미진된 간석지내부망공사를 빠른 기간내에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업소에서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새땅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밑에 전투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설에 필요한 륜전기재문제를 풀어주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압록강수산사업소에 새로 건설된 축양장과 굴양식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먼저 새로 건설된 축양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물고기보관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런이 늘어선 못마다에서 욱실거리는 보가지, 광어를 비롯한 살찐 물고기들을 바라보시면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축양장을 실리있게 건설하고 맛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많이 기르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이어 새로 꾸려진 굴양식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굴은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므로 조선인민이 예로부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자연먹이를 리용하여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굴양식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굴양식에서도 과학화, 현대화를 결정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같은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백두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

### 각계층 근로자들 연풍혁명사적지를 련일 참관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연풍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하는 도안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답사자들이 매일 이곳을 찾고있으며 7월에 들어와 참관자수는 더욱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위대성은 곧 우리 민족의 위대성입니다.》**

연풍혁명사적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39(1950)년 12월 내각 제30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준비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신 력사적인 곳이다. 연풍혁명사적지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내각 제30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2층건물의 연풍혁명사적관과 일군들과 협의회를 하신 집, 내각전원회의와 휴식시간에 일군들과 그 그늘밑에서 담화하신 스무나무, 샘물터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9월 연풍혁명사적관을 찾으시여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귀중한 사적물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한평생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연풍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이곳에 계시면서 전쟁승리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고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혁명업적에 대한 강의를 깊은 감동속에 들으면서 전시되여있는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돌아보고있다.

참관자들은 연풍혁명사적관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기간 몸소 사무실과 침실로 리용하신 방과 수령님께서 식사를 하신 방 그리고 2층에 있는 내각 제30차전원회의가 진행된 회의실, 회의실옆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준비하신 방을 돌아보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침략자들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대하여 뜨겁게 절감하면서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참관자들은 당시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으로 회의장소를 옮기시고 내각 제30차전원회의를 결속하신 방공호를 돌아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강철의 의지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한번 뜨겁게 느끼고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각전원회의참가자들과 협의회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집도 참관하고 준엄한 전쟁시기에도 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기울이신 뜨거운 사랑과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신 수령님의 인민적풍모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강사의 해설에 눈시울을 적시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각전원회의의 휴식시간에 스무나무밑에서 자강도 책임일군들과 담화하시면서 강물을 리용하여 곳곳에 물방아를 차려놓고 쌀을 많이 찧어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가슴뜨겁게 체득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연풍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통하여 각계층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영예를 수호하고 강성번영할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에서 기어이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 불타는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고있다.

특파기자 공로혁

#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적들의 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자

##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상을 안아오는 정치사업

### 경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담당한 단위의 당조직들에서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상반년기간에 지표별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이상 장성시킨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대표자회를 더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중요생산지표를 담당한 단위들의 당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일반천, 뜨개옷, 신발생산 단위들의 당조직들에서는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양, 신의주, 사리원, 구성방직공장들과 9월방직공장, 함흥모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방직공장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속에 이번에 진행되는 당대표자회의 정치사상적의의에 대하여 깊이 알려주면서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한편 뜨개옷과 신발생산을 담당한 단위들의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속에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심장의 박동도 보폭도 같이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기업관리를 짜고들며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고있다.

식료일용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도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삼일포특산물공장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각 도들에서는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종합적인 식료공장건설과 함께 시, 군들에 있는 식료공장, 장공장들에 대한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방공업공장 당조직들에서도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희천시, 안주시, 중구역, 동대원구역, 삼석구역, 천리마구역, 대안구역, 은파군, 연탄군, 우시군, 전천군, 재령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 올해 상반년 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생산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정치적문제이다.

지방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을 남부러운것 없는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혁명적실천으로 관철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당조직들에서는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데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있다.

중구역, 동대원구역, 삼석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경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1차소비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값눅고 질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한편 시안의 방직, 신발, 식료공장을 비롯한 모든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강계시, 사리원시, 신의주시, 함흥시를 비롯한 각지의 일군들은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전기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질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는 날을 따라 높아만 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홍

## 멸적의 의지로 능력확장공사 적극 추진

###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적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생산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8직동청년탄광 새 갱개발공사, 천성청년탄광 2단계개발구역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신창청년탄광과 령대탄광에서 전망이 좋은 채탄장들이 련이어 마련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석탄증산의 돌격로를 열기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2.8직동청년탄광 새 갱개발을 위한 굴진과 천성청년탄광 2단계개발구역공사에 전투력있는 굴진력량을 집중배치하여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신창청년탄광과 령대탄광에서 전망이 좋은 새 탄밭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빠른 시일안에 돌파하기 위한 기본방도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찾고 고속도굴진 및 굴진소대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경쟁기간을 여러단계로 나누고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굴진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새 갱조업을 위한 굴진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큰 규모의 갱을 조업하여야 하는 이 공사는 올해초부터 시작되였다. 현재 공사는 기본갱굴진, 벨트콘베아갱굴진, 새 채탄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굴진작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있다.

련합기업소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대표자회전으로 기본갱도와 벨트콘베아갱을 관통하고 당창건 65돐까지 갱조업을 앞당기고야말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하여 맹렬한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천성청년탄광 2단계개발구역공사도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신창청년탄광과 령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상반년기간에 큰 규모의 여러 예비채탄장을 마련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새 구역조업을 위한 굴진을 활력있게 내밀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릴 결사의 의지를 안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굴진공들은 막장마다에서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석탄증산의 돌격로를 힘있게 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그 기백으로

###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상반년 중요물동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날에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 대한 화물수송량을 훨씬 늘임으로써 대고조전선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4대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합니다.》**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화물수송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수송현장들에 나가 수시로 제기되는 정황에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면서 모든 철도국들에서 화차의 머무름시간과 회귀일수를 최대한 줄이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각지 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이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증송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평양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화물수송에서 큰 몫을 맡아 해제끼고있다. 국의 수송지휘일군들은 중요역들에 직접 나가 물동확보정형과 집중수송렬차들의 운행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맞게 기관차, 화차들의 맞물림을 기동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 북창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은 기관차들을 책임적으로 수리정비하고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받아들여 집중수송렬차들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고있다.

개천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매일 맡겨진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렬차들의 도착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상차역들에서 빠른 시간에 상차조직을 진행하여 집중수송렬차들의 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이고있다. 이곳 사령원들은 현실조건에 맞게 배차조직을 더욱 짜고들고 역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관차와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집중수송렬차들의 정시운행을 보장하고있다.

함흥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은 중요대상들에 대한 화물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수송전사들은 수송이자 곧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자체의 수리기지에 튼튼히 의거하여 화차수리와 정비를 빈틈없이 진행하면서 수송실적을 높여가고있다.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화차의 적재중량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또한 물동량이 집중되여있는 지역들에는 앞질러가며 화차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물동량이 널려있는 지역들에는 예견성있게 화차들을 분산배차하면서 렬차편성을 책임성있게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철길로반상태에 대하여 미리미리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수송실적을 올리고있다.

지금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전화의 나날 포화속을 뚫고 전시수송을 믿음직하게 보장해가던 그 투쟁정신으로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강명근

## 삼수발전소에서

### 전력생산성과 계속 확대

조국의 북변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웅장하게 일떠선 삼수발전소에서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전력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량강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삼수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지연군에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며 발전소운영을 잘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의 일군들은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발전기대보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현장에 내려가 전투지휘를 기동성있게 하는 한편 전력증산의 예비를 수차효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였다. 발전소에서는 발전설비들의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과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보장하였다.

발전직장에서는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발전기를 관리운영하면서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날씨조건에 따르는 발전량을 타산하여 전력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고있다. 보수작업반에서는 설비점검과 기술관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발전설비들의 보수와 함께 려자기를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생산에 리용하고있다.

한편 구조물작업반에서는 수력구조물들을 정상관리하며 언제주변을 수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설비점검에 대한 평가사업도 운영실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로동자들이 설비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고있다.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삼수발전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생산에 계속 힘찬 박차를 가하여 더 많은 전기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 새로 꾸린 목화밭에 꽃이 피였다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에 새로 꾸린 수십정보의 목화밭에 여러가지 색갈의 목화꽃들이 활짝 피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예작물, 특히 목화생산을 늘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봉화협동농장의 목화작업반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목화밭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잘하게 하고있다. 그리고 군안의 녀맹원들이 목화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기술전습을 자주 조직하여 작업반원들과 녀맹원들이 김매기와 헛가지따기, 병해충구제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비배관리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최근에도 군에서는 기술전습을 조직하여 작업반원들과 녀맹원들에게 꽃이 피는 시기 목화밭의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배워주었다. 기술전습이 끝난 후 군녀맹위원장 리은순, 초급녀맹일군들인 김정순, 리영실, 김명희, 최현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신들의 자그마한 소행을 그토록 기특히 여기시고 평가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녀맹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되새겨주며 그들이 당면한 목화밭비배관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이에 분발해나선 녀맹원들은 지금 원순치기작업을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이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새로 꾸린 목화밭에 목화꽃이 활짝 피여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재남

# 선군의 길에 영원한 승리의 7.27이 있다

이 땅우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로부터 근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7.27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한 제2의 해방의 날이며 후대들에게 영원히 잊지 말고 빛내여나가야 할 승리의 고귀한 유산을 심장깊이 새겨주는 영광의 날이다. 전승의 이날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국의 강대성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승리를 위해 더운 피와 생명을 바친 유명무명의 영웅들의 위훈을 추억하고 그 위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가다듬게 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의 백승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 (1)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원히 계승하고 빛내여나가야 할 백전백승의 철리를 새겨준 정의의 애국성전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는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군사적기적으로 남아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동원하고 1 650억US$의 군사비를 들이밀었으나 40만 5 490여명의 미군을 포함한 156만 7 120여명의 병력과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잃고 대참패를 당하였다.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소한 국가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군사경제적잠재력과 현대전의 경험에 있어서 대비할수 없이 강대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대결하여 이런 전과를 이룩한것은 세계전쟁사에 없다.

물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긍지높이 추억하는것은 비단 세계를 놀래운 군사적전과때문만이 아니다.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밑천으로 되는 사상정신적유산들이 마련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후 근 60년간의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칠수 있게 한 고귀한 전통이 창조되였다는데 전승의 거대한 력사적의의가 있다. 조국해방전쟁은 주권과 령토를 가진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첫 혁명전쟁이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처음으로 겪은 현대전쟁이였다. 이 가렬처절한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 당과 국가가 더욱 공고해지고 선군전통을 계승한 다음세대 혁명의 주력군이 자라났으며 반제혁명투쟁의 귀중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랭전이 시작된 후 자주력량과 제국주의반동들과의 첫 열전으로 번져졌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20세기 후반기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에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야말로 우리 조국과 혁명의 귀중한 유산이고 인류의 반제혁명투쟁사에 빛날 불멸의 업적이며 세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할 만년재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는 력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항일의 선군유산,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시고 력사에 의하여 그 진리성이 확증된 주체의 혁명원리이며 혁명의 법칙입니다.》**

선군은 우리 혁명에서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조직전개하신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우리 무장대오가 자라나고 백전백승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창조되였다.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총대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선군사상의 창시자, 선군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찬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전인민적전쟁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전략전술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여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완전히 꺾어놓으시였다.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대부대전과 소부대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하고 야간전과 산악전, 갱도전과 땅크사냥군조, 비행기사냥군조와 저격수조활동과 같은 전법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것이였다.

미제의 악명높은 호전《장군》들은 백수십년의 침략전쟁력사에서 써먹은 모든 전략과 전술들을 조선전쟁에 다 적용하였지만 수십성상 항일대전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전략전술앞에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당과 군대,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고 불러일으키시는 비범한 령도적수완,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시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하시는 특출한 조직동원력, 불비쏟아지는 최전선에서 언제나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강대성》과 《무기만능론》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야말로 일찌기 항일대전의 나날로부터 선군의 기치밑에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백전백승의 경험을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은 위대한 승리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항일의 선군전통을 이어받은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승리이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군대의 전투준비상태, 무장장비상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것은 정치사상적우월성이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이야말로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타승할수 있는 혁명군대의 고유한 전투적위력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되였다.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고 령활한 전략전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군대, 다시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되풀이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충만된 군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는 군대가 우리 인민군대였다.

우리 군대를《자그마한 공산군》이라고 떠벌이던 미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것이 벌써 전쟁초기부터 드러났다.《승리》를 호언하며 전쟁에 투입된 첫 순간부터 걷잡을수 없는 패주만을 거듭한 미제는 대전해방전투를 비롯한 주요전투들에서 이른바 《불패》를 자랑하던 《상승사단》들의 비참한 괴멸을 체험해야 했으며 저들자신이 《상심령》,《함정골》로 이름붙인 조선의 고지들에서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할수 없었다. 이것은 돈에 팔린 오합지졸의 무리인 미제침략군이 정의의 전쟁에 떨쳐나선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에게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의 일단이다.

위대한 령장이 불패의 강군을 키운다.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연 영웅들과 한치의 땅을 지켜 마지막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운 1211고지와 월미도, 포항의 용사들을 비롯하여 원쑤격멸의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인민군용사들의 심장에 맥박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 조국은 생명보다 귀중하며 죽을지언정 한치의 땅도 원쑤들에게 내여줄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였다.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은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의 근본바탕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선군의 길에서 마련된 군민일치, 군민단결의 자랑찬 승리이다.

우리 혁명에서 군민일치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나날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사상을 제시하시고 군민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주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인민적전쟁이였다.《후방도 전선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이 군대와 한전호에서 싸움도 같이하며 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고 전시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투쟁정신은 항일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적들의 폭격속에서도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무기생산을 보장한 로동계급과 불비속을 헤고 1211고지와 351고지의 인민군용사들에게 포탄과 식량을 운반한 남강마을녀성들, 전선에 나간 남편들을 대신하여 보잡이운동을 벌리며 전시식량증산에 떨쳐나선 농촌의 녀성들을 비롯한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은 오늘도 조국해방전쟁사에 불굴의 영웅서사시로 아로새겨져있다.

전쟁의 승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려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에 의하여 이룩된다는것을 세계앞에 자랑스럽게 보여준 여기에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력사적의의가 있다.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은 무적의 강국은 선군의 총대를 가진 나라이며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의 력사와 전통을 가진 군대와 인민이다. 이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세대와 후대들에게 새겨주는 승리의 철리이다.

## (2)

선군은 우리의 전승이 세기를 이어 빛나는 승리로 이어지게 한 필승의 보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과 혁명을 보위하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권위를 세계에 높이 떨치게 되였습니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백번 이겼다 하여도 한번 패하게 되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빼앗기게 되고 민족적참화를 면할수 없게 된다.

우리 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을뿐아니라 전후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제와의 대결전에서도 련전련승을 떨쳐왔다.

우리와 미제와의 대결전은 그 폭과 심도에서, 그 지속성과 격렬성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세상에는 우리 나라와 같이 반세기이상이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군사와 정치, 경제와 사상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치렬한 대결전을 벌려온 나라는 없다. 이 전대미문의 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승리의 전통을 빛내여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의 업적과 경험을 계승하여 우리의 군력을 강화하고 자위적국방공업을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으며 선군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가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정전상태가 계속되는 조건에 맞게 천만군민을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금성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킨 탁월한 령도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이며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상대가 약하면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전쟁의 불을 지르는것이 미제국주의이다.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와 민족은 투철한 전쟁관점을 지니고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오시면서 정전상태가 계속되는 조건에 맞게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성새로 다지시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천만군민이 결사의 조국수호정신과 투철한 계급적자각, 주체적인 전쟁관점을 지니도록 하시고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철령과 오성산, 351고지와 초도를 비롯한 조국땅 방방곡곡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군민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전국이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면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으며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수 있다. 미제가 군사적도발책동을 집요하게 벌리면서도 우리 나라에서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르지 못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결사의 각오에 넘쳐있고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다져진데 있다.

미제국주의와는 언제든지 한번은 싸워 결판을 내겠다는 결사의 의지, 미제가 일단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전쟁의 근원을 없애버릴 전투적기상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과의 그 어떤 대결에서도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갈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미제의 끊임없는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온 불멸의 령도이다.

전승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땅우에는 언제 한번 평화가 깃든적이 없다. 지난 반세기이상 우리 조국의 날과 달들은 모두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전야의 날과 달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최근 미제가 1969년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때 우리 나라의 중요지역과 군사기지들을 초토화하려고 세가지 방안으로 된 핵공격계획들을 짜놓은 사실이 공개된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보다 몇배, 몇십배의 참화를 가져올 준엄한 날들이 이 땅에 흘렀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언제나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국방공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오시였으며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으로 미제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선군조선의 존엄을 담보하는 강력한 병기창으로 일떠세우신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히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20세기 반제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것은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다.

국방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고 생존권이며 존엄이다.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20세기 50년대의 전승의 축포를 세기를 이어 승리의 축포로 터쳐올리는 군대와 인민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군사적위력은 지난 1950년대와는 대비도 할수 없이 강대하다.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 지난 반세기이상의 반제대결전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과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다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국방공업이 있기에 우리의 전승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정치와 외교, 경제와 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제국주의를 제압하고 창조와 변혁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빛나는 령도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상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다. 반제군사전선에서뿐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하여야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고수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 총폭탄대오로 꾸리시고 전체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우리의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을 천백배로 다지고 우리 조국땅우에 미증유의 창조와 변혁이 수놓아지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정치는 힘이고 힘은 곧 총대이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며 반제외교전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제압하는 밑바탕에는 무적의 군력이 있다. 선군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분쇄해버릴수 있었고 군민대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제재책동을 짓부시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게 되였다.

오늘 미제를 타승한 영웅의 땅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열리고 우리 인민의 오랜 리상이 하나하나 실현되여가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이것은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전승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다.

## (3)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과의 최후결사전에서 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혁명로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력사적시대에 살고있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불패의 국력을 가진 대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을 종국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최후결사전이다.

제국주의와의 전쟁은 불과 불이 오가는 격전장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전쟁은 전쟁수행에 동원될수 있는 잠재력들을 무력화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긴장격화와 악랄한 경제제재책동으로 평화적인 건설을 방해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키며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것이 오늘 미제가 추구하고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정치군사분야에서뿐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불패의 국력을 가진 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 여기에 제국주의와의 최후결사전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

우리의 선군은 총대만 강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튼튼히 다지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선군의 길에 영원한 승리의 7.27이 있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령도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드는 길에 우리 조국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지는 길이 있다. 전당, 전군, 온 사회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선군정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이라는 확고한 관점,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으로 만난을 뚫고 나가려는 비상한 각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하려는 투철한 립장,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우리는 항일대전의 승리로부터 조국해방전쟁의 승리, 혁명의 년대기마다 백승을 떨쳐온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 1990년대에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천백배로 다져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지녀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다.

우리는 적들과 언제든지 한번은 최후의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으로 장비된 불패의 강군과 공고한 후방, 어떤 최첨단무기와 군사기술장비도 제힘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을 가진 우리의 군사적위력앞에서는 미제의 그 어떤 정밀타격이나 선제타격도 맥을 추지 못한다.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수십년간에 걸쳐 쓰디쓴 참패를 거듭해온 자기들의 처지를 망각하고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강한 군사력은 튼튼한 경제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최근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고 주체비날론과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고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 식의 CNC기술이 세계패권을 틀어쥐고 최첨단을 돌파하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우리는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자기 힘, 자기의 기술로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우리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야 한다.

세기를 이어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승리의 력사를 창조해온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선군령도따라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며 반제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땅우에 강성대국선포의 승전고를 높이 울릴것이다.

정광복, 정선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몬로비아

리베리아공화국 대통령

**엘렌 죤슨 써리프각하**

나는 리베리아독립 163돐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리베리아정부와 인민이 당신의 령도밑에 민족적단합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7월 24일 평 양

말 레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나쉬드각하**

나는 뜻깊은 독립절을 맞이하는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친선관계가 끊임없이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7월 25일 평 양

# 독창적인 주체전법을 창조하시여

##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군사적지략으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주체39 (1950) 년 7월 어느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선사령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황을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대전해방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론산계선에 진출한 인민군련합부대를 대전으로 우회기동시키며 적의 퇴로와 증원부대의 진출을 차단하고 소부대를 시내에 진입시켜 적들을 혼란시키는 한편 각 부대들로 하여금 대전의 적들을 정면과 익측에서 타격하기 위한 작전전술적명안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전법과 탁월한 령군술이 있었기에 대전해방작전은 세계의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포위작전으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작전적구상에 따라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이른바 《상승사단》이라고 뽐내던 미제침략군 24사단을 비롯한 적의 대집단을 완전히 격멸소탕함으로써 대전해방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대전해방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

그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 명철한 가르치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안가까이에 있는 섬들을 가리키시며 해안방어에서 섬들을 잘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적들을 바다우에서 철저히 소탕해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전술적방도들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한놈의 원쑤도 땅우에 올려놓지 말고 바다우에서 철저히 소탕해버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미제의 무모한 발악적공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나갔다.

##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계속되는 전쟁의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신공세》의 전주곡으로 《정형고지》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당시 미제침략자들은 이 전투를 《모범전투》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참관단까지 조직하는것과 함께 수많은 병력과 전투기술기재들을 동원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의의 정황속에서도 전선형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적들의 공격을 일격에 격파해버릴수 있는 기묘한 작전전술적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인민군포병부대를 신속히 《정형고지》계선에 진출시켜 공격하는 적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용사들은 하루밤사이에 겨울철의 험한 길을 달려 지정된 계선에 정확히 기동전개하여 공격을 개시하려던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미제의 이른바 《모범전투》는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으며 적들의 《신공세》는 수치스러운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였다.

강철남

# 불멸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

## 대중을 선군혁명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 재령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승리의 7.27!

해마다 이날을 맞을 때면 조국의 고지와 도시와 마을들을 진감시키였던 승리의 환호성이 오늘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7.27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한 제2해방의 날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선전원이 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재령군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적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고있다.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은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 실효를 기대할수 없다. 군당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면서 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을 적극 인입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을 교양자료와 해설제강을 보장해주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출연하는 강의에 직접 참가하면서 학습지도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준것이다.

전승절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과 관련한 학습제강이 나왔을 때였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이 사업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 성원들을 인입할것을 계획하고 그들을 위한 안내강의를 조직하였다. 어느날 강의합평에 참가하였던 군당위원회비서 변명복동무는 강의가 통속적으로 진행되자면 보다 실효가 높은 강의형식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중의 하나가 강의내용에 전시가요를 적절히 배합하는것이였다. 그는 연구실성원들에게 전시가요가 나오게 된 력사적경위를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것을 강의내용에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준비를 충분히 갖춘 후 연구실성원들인 강영순, 윤일순동무들이 군급기관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앞에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남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신 내용을 전시가요와 결부하여 진행한 이들의 강의는 대중과 교감이 잘되여 실효가 높았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다지게 하는 교양사업은 리문화회관들에서도 일제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만년재보이다.

군당위원회가 전승업적교양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승업적을 선전하도록 준비시킨것은 주목할만 하다.

7.27을 맞으며 당 및 근로단체, 지역단위로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조직한것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에서 후방으로, 후방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하시며 군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라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였다.

군급기관의 당 및 행정책임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상봉모임에 출연한 전쟁로병 박진식아바이는 식량생산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이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에게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일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즈음 재령군에서는 전쟁로병들과 공로자들로 무어진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이 고조를 이루고있다.

영농전투로 끓어번지고있는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포전을 순회하며 실담과 전시가요 등을 배합하여 이들이 벌려나가는 화선식강연선전활동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보다 큰 혁신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고있다.

전승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불멸의 전승업적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특히 풀베기가 한창인 협동농장에 나가 군당책임비서 남승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진행하는 참신한 정치사업은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비상히 폭발시키고있다.

지난 시기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봉천, 룡교협동농장이 앞선 단위들과 어깨를 겨루며 영농과업수행에서 실적을 내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불멸의 전승업적교양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벌림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우고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는 이곳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매우 혁신적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 일군들의 이신작칙과 원군기풍

### 연탄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연탄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하다. 이들은 맡겨진 생산계획을 매달 넘쳐 수행하면서도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돕는 사업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비결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온 사회에 원군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계속 인민군대를 적극 내세우고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군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서도 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초급당비서 정철호동무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날 그가 세멘트작업반 생산현장에 나갔을 때였다.

때마침 거기서는 지배인 로기남동무가 로동자 김연범동무의 아들이 조국보위초소에서 보내온 영예사진과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한바탕 진행하고있었다.

지배인이 머무른 시간은 길지 않았어도 김연범동무는 물론 모두의 심장은 흥분으로 하여 뜨겁게 달아있었다.

《초소에 서있는 누구의 자식에게서든지 무슨 자랑스러운 새 소식이 오기만 하면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며 고무해주군 하니 지배인동무의 머리에는 공장뿐아니라 조국보위초소가 늘 떠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당세포비서 장명철동무가 하는 이 말은 초급당비서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지배인의 정치사업이 그렇듯 대중의 커다란 공감을 사는것은 군사를 제일국사로 대하는 그의 투철한 관점과 원군사업에 만사를 제끼고 나서는 이신작칙때문이였다.

지배인은 초급당위원회에서 원군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때마다 남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스스로 큰 몫을 맡아나서군 하였다. 그리고 현행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원군사업을 더 잘해나갈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면서 이악하게 실천해나갔다.

건군절과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국가적기념일들을 계기로 종업원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인민군군인들에게 지성어린 원호물자들을 보내준것은 물론 종업원들의 자녀들이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날 때마다 역두에까지 나가 바래주면서 친부모, 친혈육의 정을 기울인것을 비롯하여 감동깊은 사실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원군사업에서 항상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지배인 로기남동무의 모범은 원군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일군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해주고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의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었다. 모든 일군들이 지배인처럼 원군사업에서도 기수가 되여 내달리는 실천가가 되도록 하는 사업을 보다 심화시키였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종업원들의 뜨거운 원군열기를 더 한껏 폭발시키는 불씨로 되였다.

온 공장에 원군기풍이 꽉 차넘치는 속에 종업원들속에서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원군미풍들이 더욱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을 중시하면서 원군의 불길을 날로 세차게 지펴올리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리정수

## 로병들을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마음

### 대성종합식당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최근 대성종합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

#### 다시 세워진 일정계획표

지난 7월 어느날, 지배인 장미영동무는 책상우에 놓인 전승절봉사일정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환영준비, 식사조직, 로병들의 가정방문…

척 보기에도 종업원들의 뜨거운 진정이 그대로 비껴있는 일정표였다. 하지만 장미영동무는 왜서인지 그것만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머리속에는 언제인가 국가적인 기념일을 맞으며 로병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던 때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 명절봉사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자 로병들은 앞을 다투어 서로의 전투위훈담을 펼쳐놓으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전시가요들을 불렀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로부터 시작된 노래는 합창으로 번져지며 봉사자들은 물론 모두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지배인은 무릎을 쳤다.

어제날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바쳐싸운 전쟁로병들에게 전시가요들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예술소품공연을 펼쳐보인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무적힘이 되겠는가.

그의 이런 결심을 당조직은 적극 지지해주었다. 초급당비서 백경화동무는 그후 종업원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여 로병들을 위한 봉사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7.27봉사일정표에는 로병들을 위한 특색있는 예술소품공연까지 더 첨부되여 다시 세워지게 되였다.

#### 생일일람표가 전하는 사연

봉사시간이 거의 끝나갈무렵,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울리며 량손에 그릇을 들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한 녀인이 불쑥 뛰여들었다. 그는 전쟁로병인 시아버지를 모시고있는 룡흥2동에 사는 녀성이였다.

그러나 그는 봉사시간이 지난것으로 알고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되돌아나가는것이였다.

바로 그 녀인의 모습은 퇴근길에 오르려던 신영춘, 박혜연, 윤향란, 전순희동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꼭 무슨 사연이 있는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퇴근시간을 미루어가며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그의 집을 찾았다. 그때에야 그들은 오늘이 전쟁로병의 생일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자기 집까지 찾아온 봉사자들을 마주한 그 녀성과 그의 온 가족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날 전쟁로병의 집을 나서는 그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돌렸더라면…)

다음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전쟁로병들을 잘 도와주는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었다.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혁명적의리며 도덕이다.

바로 이렇게 되여 룡흥2밥공장을 비롯한 구역안의 여러 봉사단위들에서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담당하고 그들의 이름과 집주소, 생일과 식성까지 적힌 특색있는 생일일람표를 만들어 리용하게 되였다.

우리는 여기에 지난 기간 그 생일일람표와 함께 최정순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바쳐온 나날들에 꽃펴난 가슴뜨거운 사실들을 다 적지 않는다.

—우리를 친혈육의 정으로 위해주는 봉사자들의 진정에서 우리 당의 사랑, 조국의 고마움을 더욱 뜨겁게 느끼군 합니다.

대성구역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이 한결같이 터치는 이 진정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구역안의 봉사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참모습을 다시금 뜨겁게 안아보게 된다.

본사기자 최영길

## 더 높이 울려라 선군의 메아리

천만군민의 마음이 전승의 광장으로 달려오고있다.

사랑하는 고향,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영웅전사들의 넋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 포연에 그슬린 아버지의 군복자락에 안겨들던 소녀의 귀밑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리였다.

맑고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치는 승리의 웃음소리는 무엇인가.

단지 추억의 환희이라면 저렇듯 희열에 넘치지 못하리라.

그렇다. 천리방선의 병사며 용해장의 혁신자들, 협동벌의 농업근로자들은 승리자의 후손으로만 여기에 오지 않았다.

력사에 류례없는 제국주의 떼무리들과의 대결전인 고난의 행군, 강행군전투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전구들에서 승리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들은 여기 승리의 광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으로 왔다.

전세대 승리자들과 새 세대 승리자들의 대회합장, 바로 여기서 그들은 심장으로 절감한다.

총대가 굳건해야 승리한다!

진정 굳건한 총대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총대를 혁명과 건설의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시대의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이 순간을 우리는 한장의 사진에 담아 력사의 기록으로 남긴다.

글 및 사진 신충혁

## 우리 선동원

### 함흥시 흥남구역 마전협동농장 남새제1작업반 2분조 백순희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동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함흥시 흥남구역 마전협동농장에 가면 이곳 농장원들 누구나 즐겨찾는 곳이 있다. 남새제1작업반 2분조 선동원 백순희동무의 집이다.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자료들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도서들과 각종 상식자료들, 여러가지 문화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이곳을 농장원들은 《우리 도서실》이라 정답게 부른다.

백순희동무가 분조선동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던 어느날이였다. 어떻게 하면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당의 사상과 숨결이 더욱 힘있게 맥박치도록 하겠는가를 놓고 늘 사색을 거듭하던 그는 많은 위대성교양도서들을 카드화하여 리용할수 있게 자기의 집 한방을 학습장소, 교양장소로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결심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하루일을 끝낸 저녁이면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도서들을 여러번 읽어가며 그 사상과 진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때로는 필요한 도서들을 갖추기 위해 수십리 밤길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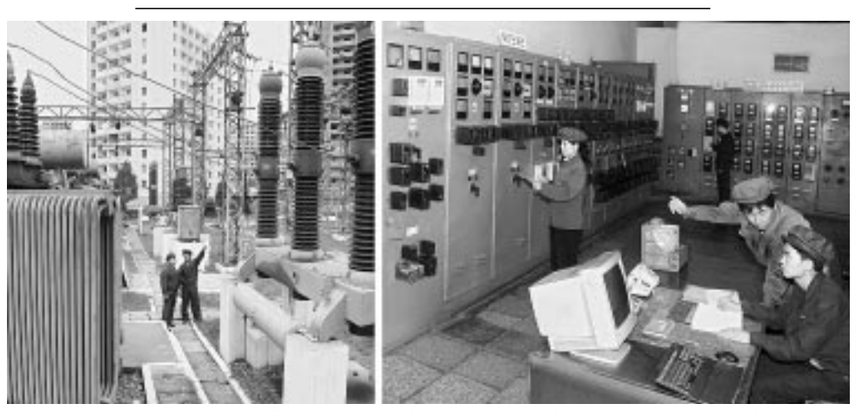
낮에는 낮대로 일을 하고 밤에는 밤대로 책속에 파묻혀있는 그를 보다 못해 그의 딸이 선동원들은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고 물었을 때도 그는 당초급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높은 신임에 보답하자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늘 두세몫의 일감을 안고 불같이 살았다.

이런 그였기에 선동원이 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근 3만 8000건의 위대성교양자료들을 카드화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도서와 상식자료들과 함께 하모니카, 북을 비롯한 문화기재들도 그쯘히 갖추어놓을수 있었다.

농장원들은 누구나 자주 그의 집을 찾아 새로 나온 도서들도 보고 저녁이면 모여앉아 서로 론쟁도 하면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더욱 깊이 체득해나갔다. 그의 집은 분조원들의 학습토론장소이기도 하였고 선동원들의 경험교환장소이기도 하였으며 다채로운 오락과 민속놀이로 집단의 단합을 굳게 해주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바로 농장원들이 좋아하는 이 《도서실》의 열성독자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분조의 농업생산에서는 보다 큰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모란봉구역송배전소에서— 리진명 찍음

## 목표는 높이, 실천은 완강하게

### 박천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돌아보고

얼마전 우리는 박천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최근년간에 중앙경공업공장들과도 견줄만큼 멋지게 변모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듣고 서둘러 군을 찾았다.

넓게 열린 읍거리를 따라 얼마쯤 가느라니 아담한 공장이 큰길옆에 자리잡고있었다. 박천식료공장이였다.

우리는 수수한 작업복차림을 하고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무엇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있는 군인민위원장 류정국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하나하나씩 현대화해나가고있는 군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잘 알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선군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미래관과 높은 창조정신이 깃들게 만년대계로 하여야 합니다.》**

지방산업공장현대화목표실현에서 이곳 식료공장 장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은 마지막단계라고 말할수 있다. 군안의 주민들에게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을 매달 떨구지 않고 공급하면서도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우려는 군일군들과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의 높은 승벽심은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있을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본래의 생산공정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현대적인 설비들로 일신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군안의 건설기업소로동자들이 발동되여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새 건물을 일떠세웠다. 각지 기초식품공장현대화에서 창조된 성과와 경험을 자기 고장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군일군들이 이처럼 늘 현장에 나와 걸린 고리를 앞질러가며 풀어주고 난관앞에 주저앉을세라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이곳 식료공장의 현대화는 그 어느 단위에 못지 않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완공의 날을 앞당길수 있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당대표자회를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그들은 장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맛있고 영양가높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군안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도, 생산공정 하나를 기술개건하여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해나가려는 애국의 마음안고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데서 표현된다. 군식료화학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식료화학공장은 그야말로 천지개벽되였다. 생산건물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개건되였고 공장구내는 꽃속에, 수림속에 묻혀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빨래비누, 물비누를 매달 군안의 세대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자체로 꾸린 생산기지에서 콩우유를 팡팡 생산하여 군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변모된 이 공장의 모습은 아담한 생산건물의 2층에 꾸린 버섯생산기지와 일용품생산기지에도 비껴있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는 공장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한다.

《자기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들만이 자기를 바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하는 공장지배인의 말을 뒤에 남기고 그길로 많은 단위들에서 경험과 성과를 배우려 여러차례 찾아왔다는 박천종이공장으로 향하였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현장에 들어서니 큼직큼직한 설비들이 틀지게 들어앉아 첫 순간에 호기심을 끌었다. 동행한 일군은 지방의 원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이 종이공장의 경험은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사실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에 불과한 이 종이공장을 기술개건하는 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지배인 김수남, 초급당비서 김순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하자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막혔던 길도 열리기마련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군안의 종이수요를 보장하자.

이렇게 일군들은 대중의 심장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며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였다. 공무작업반장 김홍찬동무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종이생산공정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설비제작에 들어갔다. 고심어린 탐구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는 속에 위훈의 낮과 밤이 흘렀고 짧은 기간에 그처럼 어렵게만 생각하였던 현대화의 목표도 하나하나 점령해나가게 되였다.

지금 박천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려운 현대화의 길을 웃으며 달려온 지나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 후방사업을 정치사업으로 여기고

개천석탄탐사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여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종업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의 한 고리로 일군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출연하는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무대에 오른 초급당비서 윤정호동무와 대장 김철영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하였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기업소의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건물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공연무대를 펼친데 이어 초급당조직에서는 후방부문 일군들속에 들어가 항일혁명선렬들이 후방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여기고 투쟁한 사실자료들이 있는 회상기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이런 정치사업은 후방부문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업기지에서 고기와 우유, 남새 등을 많이 생산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후방사업이 잘되는데 고무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기업소를 잘 꾸리며 탐사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들을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정창옥

#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참된 애국자

## 강원도인민보안국 아래단위에서 일하는 리보전동무

오늘 우리 사회에는 별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일터는 아니지만 당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 성실하게 한생을 바쳐가는 참된 인간들이 많다.

강원도인민보안국 아래단위에서 일하는 리보전동무는 지난 20여년동안 당이 맡겨준 초소를 묵묵히 지켜 륜전기재의 만가동을 보장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230여종에 1만 수천점의 차부속품을 해결하여 륜전기재들의 무사고 운행에 이바지한 참된 인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보전동무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 직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주체72(1983)년 9월 리보전동무는 새 직무에서 일하게 되였다. 그가 맡은 임무는 륜전기재들의 기술상태를 검사하고 그 운행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이였다. 처음 그는 이 일을 어렵지 않게 해낼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게 하는 계기가 있었다.

어느날 그가 담당한 군의 한 협동농장의 자동차에 대한 검사가 제기되였다. 시간이 바빠 빨리 떠나야겠는데 도와달라고 하며 검사증을 내보이는 자동차운전사에게 리보전동무는 다급히 자동차에 대한 기술상태를 검사하고 운행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길을 떠난 자동차는 물동을 싣고 돌아오던중 령길우에서 멈춰서게 되였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나의 무원칙한 인정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구나. 높은 책임성은 당의 뜻을 심장으로 새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깊은 생각끝에 그는 담당한 군의 륜전기재와 관련한 사업을 원만히 할수 있는 건물을 꾸릴 결심을 하게 되였다.

일단 결심을 하고 나섰지만 자체의 힘으로 건물을 짓는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걸린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무엇보다 세멘트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다.

며칠후 그의 발걸음은 군에서 수백리 떨어진 어느 한 세멘트공장으로 향하였다.

공장에 도착한 그는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짬짬이 출하장에 흘려진 세멘트를 한줌, 두줌 쓸어모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그의 일을 제일처럼 도와나섰다.

리보전동무가 건설에 쓰일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된 그곳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적극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여 목재 등 자재들이 해결되고 로력문제도 풀리게 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건물이 번듯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리보전동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자면 무엇보다도 검사기공구를 더 원만히 갖추어야 하였다. 그는 도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검사기공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군안의 농기계작업소와 협동농장기계화작업반들이 자기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사업도 도와나섰다.

군농기계작업소에서 농기계수리에 절실히 필요한 철판절단기를 갖추어놓지 못하여 륜전기재수리에서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였다.

이 일도 스스로 맡아안은 리보전동무는 어느 한 기업소를 찾았다. 기업소의 일군을 만난 그는 이렇게 절절히 호소하였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군농기계작업소에 절단기가 없어 륜전기재수리정비에서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리보전동무를 작업소일군으로만 알고 대책을 세우던 일군은 얼마후 그의 직무를 알게 되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작업소의 일을 제일처럼 생각하는 동무를 봐서라도 돕겠습니다. 농촌을 적극 돕는것은 우리모두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기업소에서 철판절단기뿐아니라 철판굴곡기와 산소분리기까지 해결함으로써 군농기계작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갖추어놓을수 있게 되였다. 그날 리보전동무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피여올랐다.

### 생의 보람과 긍지

리보전동무가 어느 한 군에서 맡은 일을 하고있던 때였다.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침수지역인 어느 한 군의 읍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방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리보전동무였다.

《책임비서동지, 륜전기재문제는 제가 풀겠습니다.》

《동무가 말입니까?!》

군당책임일군은 놀라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군에서 빈차로 가동하는 자동차들, 군을 거치는 륜전기재들을 발동하면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리보전동무는 자기가 일하는 초소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빈차운행을 료해하여 읍지구이설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리보전동무가 담당한 군의 자동차운전사들은 물론 일군들과 인민들은 늘 배낭을 메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군 한다.

거기에도 사연이 있다. 언제인가 그가 어느 한 농장에 갔을 때의 일이다. 리보전동무는 뜨락또르부속품이 걸려 출동식을 제 날자에 보장할수 없게 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물론 그것은 그의 책임은 아니였다. 그러나 리보전동무는 그밤으로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농장일군이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안됩니다. 그렇게 일하다가는 몸이 무쇠라도 견디겠습니까. 우리 일인데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에 리보전동무는 미소를 지어보이며 흔연히 말하였다.

《농사와 관련된 일인데 네일내일을 가리겠습니까.》

그리고는 길을 떠났다.

이틀후 땀에 흠뻑 젖은 리보전동무가 배낭을 메고 나타났다. 부속품이 들어있는 묵직한 배낭을 받아내려놓으며 농장일군이 미안해하자 리보전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만하면 출동식을 제 날자에 보장할수 있을겁니다. 우리 함께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봅시다.》

온몸이 물주머니가 된 리보전동무를 바라보는 일군들과 운전수들의 눈굽은 뜨거워났다.

언제인가 리보전동무가 휴식을 미루어가며 고장난 한 화물자동차의 수리를 도와주고나서 허리를 폈을 때였다. 물동을 가득 싣고 달려오던 한 자동차가 속력을 늦추더니 낯익은 운전사가 불쑥 머리를 내밀었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리보전동무에게 손을 흔들어보였다.

리보전동무도 마주 손을 흔들어 그를 바래였다.

이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일군이 리보전동무에게 물었다.

《무슨 기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리보전동무는 얼굴에 미소를 띠운채 말하였다.

《기쁩니다. 생의 보람이란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조국에 보탬을 주었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리보전동무는 이런 인간이였다.

리보전동무와 같이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맡은 일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조국이 굳건한것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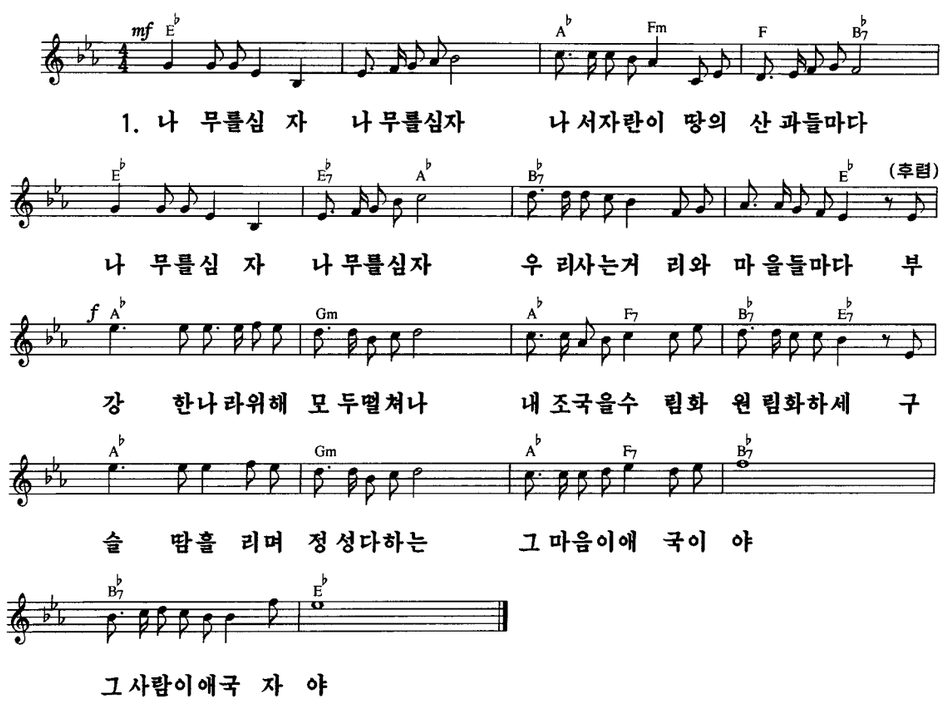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 천 일

리 보 전 동 무 (오른쪽에서 첫번째)

#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밝고 활달하게 (♩= 119)




2.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그루마다 만복의 열매 넘치게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아지마다 새들의 노래 즐겁게
(후렴)

3.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만년대계 조국의 번영을 위해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후손만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후렴)

### 자랑많은 후방가족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김윤히, 조경숙가정은 세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이다.

이들부부는 늘 자식들에게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주면서 피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부모들로부터 조국의 귀중함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김윤히동무의 세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으며 딸도 군관의 안해가 되였다.

로농통신원 원 기 연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5일 제25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할 여러 나라 야영단 단장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 로동계급속에서 꽃펴난 선군시대 새 문화의 본보기

##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 성황리에 진행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과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이 21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계급의 전투적기상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 정책적대가 뚜렷한 작품들로 관중을 격동시킨 공연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였으며 선군시대 새 문화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공연장소인 인민문화궁전은 관람자들로 련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자랑을 안고 공연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대중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열정을 심어주고 그들을 혁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며 혁명적인 군중문화예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합창 《장군님은 우리 어버이》, 대화시 《백두산3대장군 그 사랑 노래합니다》, 녀성중창과 방창 《고향집추억》 등의 종목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워주시고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열렬한 공장애, 조국애를 지니고 랑만과 희열에 넘쳐 진군해나가는 근로자들의 헌신적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제창이야기 《사랑하는 나의 일터》, 녀성중창 《우리 공장구내에서 꾀꼴새 노래하네》, 녀성독창과 장고병창 《뽕따러 가세》, 재담 《경쟁열풍》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극선동 《구리단추》, 선동이야기 《우리 공장정문앞에 〈푸에블로〉호가 있다》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불타는 적개심과 천백배의 복수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주었다.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해갈 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런듯 힘차게 울려퍼지는 시와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남성5중창과 합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시와 합창 《폭풍쳐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는 온 장내를 혁명적열정과 기백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할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나라 외무상과 웰남외무상 회담

【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웰남을 방문하고있는 박의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팜 자 키엠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부수상겸 외무상의 회담이 24일 하노이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외무성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 독자의 편지

# 우리 제도가 제일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는 자강도 중강군에서 온 환자의 할아버지입니다. 손녀가 3개월이 넘도록 치료를 받고있는 기간에 돌려진 무상치료제의 혜택과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에 감동되여 펜을 들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중앙병원문턱을 누워서 넘어섰던 손녀가 두달만에 발걸음을 떼였고 오늘은 지팽이를 놓고 서서 걷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이 기간에 손녀의 몸으로 흘러든 수많은 고가약과 의료일군들의 정성을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병동장, 과장, 의사선생님들모두가 친혈육의 정으로 저와 손녀를 대해주었습니다. 심심산골 먼곳에서 왔는데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서 꼭 고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며 진심어린 말들을 하여주었습니다. 몸을 추세우는데 좋은 영양식품은 물론 신발, 옷까지 마련해주면서 친혈육처럼 위해주었습니다. 조명식, 주원철, 리경일선생님을 비롯하여 3소아과, 아니 온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진정에 매일밤 이불깃을 눈물로 적십니다.

저와 손녀, 온 가족은 고마운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생토록 자신들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중강군 오수리 27인민반 안 승 하

#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 전초부대의 영예떨치리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검덕광부들의 기세는 대단하다. 김철의 호소와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년초부터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우리 검덕의 광부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되자면 원대한 포부와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니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공동구호에서 《단천지구 광산, 기업소들은 인민생활향상의 전초부대의 역할을 다하라!》고 호소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의 전초부대, 이 얼마나 긍지높은 부름이고 값높은 영예인가. 여기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단천지구의 로동계급이 선봉대, 돌격투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는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

—인민생활향상의 전초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이것이 우리 검덕로동계급의 한결같은 결심이고 불같은 지향이다. 어느 막장, 어느 일터를 찾아가보아도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으며 련합기업소의 모든 광산이 그야말로 활화산의 용암마냥 부글부글 끓고있다.

지난해 5월, 우리 기업소를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우리들은 다량락광, 다량운반, 다량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갱건설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올해에 들어와 광물생산에서 한몫할수 있는 13보조수직갱개건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고품위광석이 매장되여있는 금골광산의 심부—수백m구역의 생산계통을 꾸리고 채굴장준비를 끝냄으로써 마침내 생산에 진입하였다.

남풍광산과 로은광산, 청년광산을 비롯한 상부지구에 수백만t능력의 대형채굴장들을 형성하고 현대적인 채굴설비와 새로운 공법으로 락광을 시작하였으며 4.5청년전차갱의 광석운반로선과 콘베아사업소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보수와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다량운반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2선광직장과 제3선광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새 세기 표준선광장으로 꾸리기 위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선광공정의 CNC화와 기술개건사업을 광물생산투쟁과 동시에 통이 크게 밀고나감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지금보다 적은 전기와 자재를 가지고도 다량처리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우리 기업소는 이미 꾸려놓은 자력갱생기지들에서 수많은 설비부속품들을 생산하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금골의 거리와 마을을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수 있게 건재생산기지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였다.

우리 기업소가 거둔 이 모든 성과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 금골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광물생산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검덕로동계급에게 인민생활향상의 전초부대라는 값높은 믿음을 안겨준 당의 기대에 보답하려는 기업소안의 일군들과 광부들의 영웅적투쟁의 결과이다.

우리 검덕로동계급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인민생활향상의 전초부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혁명의 전환적인 년대마다에 광물생산으로 당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온 전세대 광부들처럼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갱건설과 굴진을 계속 앞세우고 다량락광, 다량운반, 다량처리로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것이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지배인 리 문 봉

#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때

당보지상연단에 나서니 생각이 깊어진다.

돌이켜보면 내가 피복공업부문에서 일하면서 당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공장지배인으로 사업해온지 30년이 넘는다.

그 나날에는 공장이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도 수놓아져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와 같은 그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때에도 놀라운 생산적앙양을 이룩한 경험도 깃들어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모든 자랑에 앞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오늘 당보지상연단을 통하여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바로 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를 풀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당 단위에서 일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참으로 정당한 가르치심이다. 지배인으로 일해온 지난 수십년은 나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가슴깊이 절감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20년전 6월, 전국경공업대회의 주석단에 앉았던 저를 일 잘하는 지배인으로 불러주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을 나는 꿈결에도 그려보군 한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공장의 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저의 소박한 편지도 보아주시면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절세의 위인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나의 가슴속에서 높은 포부와 불같은 열정이 용솟음치게 한 자양분이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실정에 맞는 기술관리체계와 설비관리체계, 품질감독체계를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꾸준히 벌려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기술자들이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특히 생산을 담당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였다. 그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하였으며 생산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여 현장로동계급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일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면서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제품을 짱짱 생산하여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훨씬 높이였으며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우리는 지금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을 당대표자회전으로 기어이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높일 때 승리는 확정적인것이다.

모란봉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로력영웅 장 금 숙

#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추정협동농장은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연백벌에 위치하고있다.

농업생산을 늘여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긴 우리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는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았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년초부터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작업반, 분조들을 맡고 현지에 나간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당초급선전일군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연백벌을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주는것과 함께 올해에 또다시 농업전선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으로 정한 당의 의도를 깊이있게 해설해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전투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영농전투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내세웠고 온 농장에 사회주의경쟁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그런 속에서 로력혁신자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났으며 논밭비배관리에서도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장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니 그들의 정신력은 참으로 무섭게 폭발되였다.

우리는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면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뿜어주는 송풍기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추정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며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 강성대국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배천군 추정리당비서 리 정 복

#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종국적파멸뿐이다

##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소동

남조선괴뢰들이 미제와 함께 끝끝내 우리를 반대하는 해상련합훈련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이번 북침전쟁연습에도 그 무슨 누구의 《도발》에 대처한 《방어훈련》이라는 외피를 씌우고있다. 이것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기만행위이다. 장장 65년동안이나 남의 나라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전조선을 집어삼켜보려고 호시탐탐 침략의 칼을 갈고있는 미제침략군과 그와 작당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전쟁소동에 미쳐날뛰는자들이 저들의 북침불장난소동을 《방어》를 위한것으로 묘사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수작이다.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사태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갈 이번 련합훈련의 위험성을 가리우며 광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미국해상련합훈련의 강행은 철두철미 제2의 조선전쟁도발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단정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여 조선동해상에서 련합훈련을 감행하는것은 간과할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은 이번 련합훈련이 북에 대한 《무력시위》로, 《강력한 경고의 메쎄지》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미제7함대와 주일미군기지의 핵심무력이 참가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그들은 이번 련합훈련의 규모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년례적으로 감행해오던 군사연습들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잡았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미제7함대소속 항공모함인 《죠지 워싱톤》호와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미해군무력과 괴뢰해군의 4 500t급 구축함과 1 800t급잠수함 등 방대한 무력이 참가하고있다. 최신예전투기 《F-22A랩터》를 비롯한 200여대의 비행기가 투입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내외호전광들은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수단들을 투입하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 그것은 말이 군사연습이지 실제로는 우리 공화국을 전면공격하기 위한 립체적인 실동연습, 하나의 시험전쟁이다.

최신예공격무기들이 참가하며 연습내용이 공격작전으로 일관되여있는것도 이번 련합훈련의 위험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괴뢰호전광들은 미국상전과 련합훈련을 모의할 때 그 무슨 《대북무력시위의 극대화》니, 《넝변핵시설타격가능성》이니, 《이북 전지역에서의 작전수행》이니 하면서 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와 《F-22A랩터》전투기를 비롯한 최신전쟁수단들을 투입해줄것을 극구 간청하였었다.

항공모함이나 최신예전투기의 투입이 방어훈련을 목적한것이 아니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저들의 광고대로 《방어훈련》을 할셈이면 굳이 항공모함이나 《F-22A랩터》전투기와 같은 최신공격수단들을 훈련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전쟁불장난의 도발적성격과 위험성은 립증되고도 남는다.

미국이 강습상륙함을 이번 련합훈련에 참가시킨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그것은 명백히 우리 해안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노린것이다. 상륙은 전형적인 공격작전방식이다. 호전광들이 이번 련합훈련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 및 공중련합작전능력》을 숙달완성하게 될것이라고 떠들고있는것도 이번 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에 대한 뚜렷한 반증이다.

괴뢰들은 미국과의 해상련합훈련에 이어 년말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대잠수함훈련을 비롯한 10여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벌릴것을 계획하고있다. 최근 괴뢰국방부 장관 김태영역도는 저들이 앞으로 남조선 전지역에서 북에 대한 《무력시위》성격의 련합훈련을 계속 벌릴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이번 련합훈련을 기화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의 도수를 더한층 높임으로써 정세를 폭발직전의 위험국면으로 더욱 바싹 몰아가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도발은 제가 하고 내외여론을 향하여서는 남이 도발하였다고 걸고드는것은 미국과 괴뢰군부계층의 상투적수법이다. 내외호전광들이 있지도 않는 북의 《도발》을 운운하면서 《응징》이니, 《선제타격》이니, 《보복》이니 하는 호전적인 폭언을 함부로 줴치는것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사태는 내외호전세력들이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있으며 그들에 의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리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과 미호전광들의 해상련합훈련은 조선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실로 파국적인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그것은 쉽사리 조선반도를 벗어나 주변지역에로 번져지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가 무서운 재난속에 빠져들수 있다. 지금 내외여론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해상련합훈련의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과의 해상련합훈련을 비롯한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직접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내외여론의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한사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엄 일 규

##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망동

조선반도정세가 또다시 위기사태에 빠져들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해상련합훈련을 강행해나선것이다. 호전광들은 저들이 군사훈련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느니, 해상련합훈련이 과거에도 실시한바 있는 《정례적인 훈련》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적극 정당화하고있다.

이번 해상련합훈련의 주력함선인 미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는 이미 조선동해수역에 기여들었다. 《죠지 워싱톤》호는 비행갑판길이가 360m, 폭은 92m에 달하며 여기에 수십대의 전투기를 탑재하고있다. 작전반경이 1 000㎞에 달하는 이 《바다의 괴물》은 보통 4척의 이지스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공모함전단을 구성하고있다. 지금 내외호전광들은 대규모무력을 투입하여 올해말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대잠수함훈련 등 10여차례의 전쟁연습을 지속적으로 벌리려 하고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해상무력은 물론 공군무력까지 참가하는 이번 해상련합훈련이 《천안》호사태에 대처한 《초대형무력시위성격의 압박조치》로서 종전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훨씬 릉가하는 대규모적인 해상련합훈련으로 된다고 떠들고있다.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동해상에서 벌리고있는 해상련합훈련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호전광들이 지난 6월초 벌려놓으려 했다가 내외의 강력한 반발에 못이겨 여러번 연기하였던 이 훈련을 끝끝내 강행하는것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저들이 당한 참패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미국상전을 믿고 함선침몰사건을 유엔에까지 끌고갔으나 그 《조사결과》에 대해 인정받기는커녕 망신만 톡톡히 당하였다. 저들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가는데 바빠맞은 보수패당은 유엔에서의 외교적참패를 만회하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다.

극도의 통치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아가는데서 찾고있는 괴뢰호전광들의 분별없는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시시각각 전쟁발발의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있다. 역적패당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벌리고있는 대규모해상련합훈련이 이제 어떤 극단적인 사태로 번져질지 예측할수 없다.

남조선의 력대 괴뢰통치배들치고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해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특대형모략극까지 꾸며내고 그것을 저들의 전쟁도발책동에 악용하는 리명박일당과 같은 극악한 민족반역집단, 반통일호전광무리는 찾아볼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괴뢰들이 대화와 평화에로의 흐름에 공공연히 역행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긴장격화와 북침전쟁도발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고있으며 그들의 전쟁광증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어리석은 망동이다. 력사는 북침전쟁열에 들떠 물덤벙술덤벙하는 호전광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만일 호전광들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감히 선불질을 해온다면 우리의 선군총대는 도발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자멸을 초래하는 무모한 짓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 로씨야고통련 성명 발표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20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동해에서 대규모해상련합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가뜩이나 긴장되여있는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공화국이 대화와 평화적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에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대답해나섰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어제는 유엔의 이름을 빌려 대조선《제재》를 꾀하더니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오늘은 유엔도 안중에 없이 그에 정면도전하여 전쟁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를 놓고 과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부추겨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리유는 명백하다. 자기들의 무기를 팔아 배를 불리자는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것이다.

리명박《정권》은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넣고 외세에 아부하며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죄악을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랭전시대의 낡은 대결관념에서 깨여나 반공화국모략소동과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해상련합훈련을 규탄하여 2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25일부터 조선동해에서 북침을 노린 대규모해상련합훈련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 8 000여명의 병력, 미제7함대의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 잠수함 등 20여척의 함정 그리고 《F-22A랩터》스텔스전투폭격기 1개 편대를 비롯한 200여대의 비행기들이 동원되게 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기습선제타격하기 위한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이며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이고 선전포고이다.

더욱 주목되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그 무슨 《동맹군사능력강화》니, 《무력시위》니 뭐니 하며 장기적으로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강도높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진행하기로 한것이다.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은 안중에 없이 외세에 명줄을 걸고 동족대결과 핵전쟁도발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는 리명박역도야말로 세상에 돌도 없는 매국노이며 극악한 전쟁미치광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리명박역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미국과 결탁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반드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항공모함따위로 공화국을 놀래워보려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영웅적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은 만일 적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선군조선의 본때를 보여줄것이다.

미국과 리명박패당은 선군조선의 기상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국과 매국역적 리명박패당의 북침전쟁소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침략적인 전쟁연습중지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늘어나는 전쟁예산

괴뢰군부의 호전성이 이번 《국방예산》편성놀음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 얼마전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내정된 한민구는 《국회》에서 《더 많은 국방비증가를 희망한다.》느니 뭐니 하며 자기가 의장자리에 올라앉으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비를 7%이상 증액시켜줄것을 건의하겠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결코 그 개인의 의사가 아니다.

지난 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보다 7% 더 많은 31조 6 127억원으로 작성된 다음해 《국방예산요구안》이라는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금 괴뢰군당국은 《국방예산》증액의 명분으로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국지전과 침투전에 대비한 전력증강》과 《〈전시작전통제권〉단독행사에 필요한 첨단전력확보》를 내세우고있다. 한마디로 함선침몰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국방예산》증액의 구실인것이다.

하지만 함선침몰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설을 현실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모략사건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도 무력증강의 구실로 될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군부가 1980년대이래 20여년간 《전력증강계획》을 부단히 추진해왔다고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일정을 늦출 아무런 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괴뢰들이 《국방예산》을 대폭 늘이려는것은 그 누구의 위협이 있거나 독자적인 군사작전체계를 갖추지 못했기때문이 아니라 북침을 위해 우리에 비한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괴뢰군부패거리들은 그 무슨 《군사적우세》에 대해 떠들어대며 천문학적액수의 《국방예산》을 쏟아부어 최신전쟁장비들과 위험한 공격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수많이 끌어들이는 한편 자체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하지만 괴뢰들의 발광적인 무력증강책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부딪쳤다.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 2009년보다 7.9% 더 늘이려던 괴뢰군부의 계획은 남조선 각계의 반대에 의해 3.6%증가로 매듭지어졌다.

골머리를 앓던 괴뢰군부는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국방예산》증액에 서슴없이 악용하였다.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이 그 누구의 《침투》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고 그로 하여 《안보불안》이 조성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가 연기된듯이 떠들어대면서 《국방예산》증액은 반드시 필요한것이라는 여론을 내돌렸다. 이것은 민심을 기만하여 《국방예산》을 대폭 늘임으로써 저들 마음먹은대로 무력증강계획을 내밀고 전쟁연습을 강화함으로써 북침전쟁준비를 완비할 흉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얼마전 괴뢰국방부 장관 김태영역도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라는것을 하면서 《최우선위협》이니, 《전력보완》이니 하고 비린청을 돋군것도 모략적인 《북위협》설을 걸고 북침전쟁《예산》을 대폭 늘이려는 호전광들의 범죄적기도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북남관계가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는 속에서 괴뢰호전광들이 전쟁준비소동에 그처럼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려 하는것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판에 박힌 《북위협》설을 떠들며 《국방예산》증액놀음에 매달리는 괴뢰들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해나서고있다.

《국방예산》증액놀음을 통해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면서 북침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괴뢰들의 반민족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는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본사기자 심 철 영

## 단평 부질없는 처벌놀음

얼마전 《한나라당》소속 의원인 강용석이라는자가 어느 한 먹자판에서 한 녀대학생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실로 경망스러운 발언을 하였다. 병은 왔다가 가도 버릇은 어데 못간다고 과시 《성추행당》, 《색정당》패거리다운 언동이다. 이자는 이전에도 이러루한 일로 말썽을 일으킨바 있는 인물이다. 그 더러운 악습이 또다시 발작한것이다. 이로 하여 여론이 물끓듯 하고 남조선정치권이 뒤흔들리고있다. 문제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용석의 발언은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수준이며 낯뜨겁고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각 신문들도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번져지자 강용석도 급해났지만 그보다 더한것은 《한나라당》이다. 추문이 언론에 공개된지 한나절만에 《한나라당》은 《륜리위원회》를 내세워 속전속결로 강용석에게 당적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가했다. 과거에 비추어볼 때 전례없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것이다. 《국회의원보충선거》를 불과 며칠앞두고 잔뜩 신경을 도사리고있던 《한나라당》패들인지라 무척 바빠난 모양이다.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대참패에 이어 《정권》내 사조직인 《영포회》의 민간인불법사찰이라는 권력형부정사건이 드러나 몰리는 판에 또 이런 골치거리문제가 터졌으니 그럴만도 하다.

보건대 《한나라당》은 말썽을 일으킨 강용석을 희생시켜서라도 불똥이 더이상 튀는것을 막고 어떻게 하나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이겨보자는 심산이다. 하지만 역적당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

민심은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역적당에 침을 뱉고있다. 《한나라당》의 처벌놀음은 주먹으로 물찧는 격의 부질없는 놀음일뿐이다.

허 영 민

## 미제와 괴뢰호전광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실시 공표

【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의 〈천안〉함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이니, 《동맹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것》이니 뭐니 하고 공공연히 떠벌여대며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그전보다 더 많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시키려 하고있다. 지금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괴뢰군의 주도하에 실시되여왔으며 연습에 동원된 미군병력수는 1만여명이였다. 그러나 이번 전쟁연습은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주도하게 되며 남조선과 해외주둔 미군 3만여명과 수많은 괴뢰군병력이 동원되여 감행되게 된다.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조선동해에서 발광적인 해상련합훈련을 벌려놓고 또다시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려는 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반공화국모략사건을 날조해낸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의 진의도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드러내보이고있다.

## 심각한 녀성차별

16일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세계 113개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남조선에서 녀성들이 법적, 사회적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교육, 로동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에서는 특히 임금지불과 취업 등에서 녀성들에 대한 차별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광기어린 파쑈폭압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이후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이 대대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놀음을 벌려놓은데 이어 2개 중대에 달하는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진보련대와 그 후원회사무실들, 단체핵심성원들의 집을 강제수색하고 소속인사들을 체포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한편 《전교조》가 시국선언운동과 집회 등 반《정부》투쟁에 앞장섰다는 리유로 이 단체소속 교원들에게 《중징계》조치를 내리고 핵심성원들에게 징역형을 들씌우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밖에도 함선침몰사건《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참여련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갖은 박해를 가하고있다. 보수패당은 야당인사인 한명숙을 기어이 물어메치려고 그를 또다시 기소하는 등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소동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폭압공세로 꺼져가는 독재《정권》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한 용납 못할 파쑈적망동이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만행은 극도의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통치위기에 몰릴 때마다 파쑈폭압에 매달리는것은 인민을 등진 남조선독재광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미국에 남조선소고기시장을 통채로 팔아먹고 분노한 인민들의 거세찬 초불시위투쟁에 부딪쳐 최악의 위기에 몰린 리명박역도는 《반성한다.》느니 뭐니 하고 기만적인 사죄놀음을 벌리는 한편 중무장한 폭압무력을 동원하여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지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유엔에서의 반공화국대결소동마저 실패하여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보수패당은 또다시 그 수법에 매달리고있다. 역적패당이 《선거》에서 패한 후 그 무슨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느니 뭐니 하며 쥐여짜던 눈물은 완전한 거짓눈물이였다. 남조선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은 현 집권세력이 저들의 매국반역정책으로 초래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벌려놓은 또 하나의 파쑈적란동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파쑈화책동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진보민주세력에게 《지방자치제선거》패배의 앙갚음을 하고 파쑈몽둥이에 의거하여 저들의 반역정책에 반기를 드는 정치적적수들을 모조리 제거하자는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진보민주세력을 누르고 집권후반기를 무난히 보내자는것이 역적패당의 속구구이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에 몰린자들의 한갖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책동은 인민들의 항의규탄을 면할수 없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책동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괴뢰당국의 매국반역통치, 반통일대결정책을 반대하면서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보수패당의 통치는 한마디로 외세에 아부굴종하고 동족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사대매국통치이고 민주주의와 인민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조국통일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극악한 반인민적, 반통일적파쑈통치이다.

남조선의 현 《정권》은 출현한 후 미국과의 《동맹관계회복》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그것이 남조선에 그 어떤 《리익》을 가져다줄것처럼 광고하였다. 하지만 보수당국의 친미굴종정책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준것이란 참을수 없는 치욕과 피눈물나는 고통뿐이였다. 더우기 남조선집권세력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해 광란적인 대결전쟁책동을 감행함으로써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자주, 민주, 통일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이며 요구이다. 하지만 보수패당의 망동으로 남조선의 식민지적예속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으며 북남관계는 풍지박산나고말았다.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은 반역도배들의 그 용납 못할 반민족적책동을 반대규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것을 문제시하며 파쑈광기를 부리는것은 자주, 민주, 통일과 철저히 담을 쌓은 인민의 원쑤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적만행이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책동은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을 결코 좌절시킬수 없다.

인민을 등지고 민족을 반역하는자들은 결코 민심의 지지를 얻을수 없으며 제가 지은 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기마련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지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쓰디쓴 참패를 당하게 된 요인도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바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는 반역정책을 강행실시하였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대세를 판별할줄 안다면 대외적으로 당한 외교적망신과 집안에서의 모든 정책의 실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저들의 엄청난 죄행에 대해 민족앞에 성근하게 사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저들의 반역정책을 시정하는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그러나 괴뢰당국은 반역정책의 실패를 진보민주세력의탓으로 몰면서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살길을 열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독재와 폭압도 인민대중의 투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남조선인민들은 독재자들의 전횡앞에 무릎을 꿇은적이 없다. 더우기 지금 민심을 악랄하게 짓밟는 현 보수당국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통치를 끝장내고 역적패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고야말려는 남조선 각계의 의지는 《국회의원보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반역도배들과 기어이 결산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기세는 충천하다.

자주, 민주, 통일은 오직 투쟁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념원을 실현하자면 괴뢰패당의 악랄한 파쑈적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강화될수록 인민들의 항거와 분노는 더 크게 폭발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 폭압에 기승을 부릴수록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지를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박 철 준

# 자주로 승리의 길을 개척하신 걸출한 수령

##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먄마, 말레이시아, 나이제리아에서 1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도서,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시행정부와 국립경제 및 봉사종합대학,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말레이시아영합성유한공사, 나이제리아 국제기자학교와 김정일주의연구소조 인사들과 군중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의 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주석께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투쟁의 보검을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은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말레이시아영합성유한공사 총경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조선통일의 구성이시다, 주석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주석의 유훈대로 가까운 앞날에 조선이 반드시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풍모가 수록된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였다.

## 네팔신문, 베네수엘라방송이 보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네팔신문들과 베네수엘라방송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였다.

네팔신문 《러허써》 15일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모시고 《자주와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70성상 조선혁명을 이끄신 김일성주석의 한생을 관통해온것은 자주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30년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제나름의 주의주장들이 나돌고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을 때 조선의 실정에 맞는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자주권수호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후 조선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국을 타개해나가도록 령도하시여 반석같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 한평생 고수해오신 자주의 기치는 오늘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이 나라 신문 《저너 써따》 17일부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는 주체사상은 네팔의 정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지도사상이며 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지침이다, 주체사상이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여기에 당의 투쟁로선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방도가 명백히 밝혀져있기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12일 베네수엘라의 뗄레쑤르TV방송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방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7월 8일은 김일성주석의 서거 16돐이 되는 날이다.

주석께서는 1912년 4월 15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방송은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어버이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그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찾아 꽃다발을 진정하고있다고 전하였다.

## 체스꼬단체들 인터네트에 글 게재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가 15일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에 《김일성,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족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방해가 우심한 속에서도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김일성주석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석께서는 언제나 민족대단결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외세에 의해 생긴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간주하시였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조국통일 3대원칙도 바로 주석께서 제시하신것이다.

그이의 투철한 민족대단결사상에 감동되여 많은 사람들이 동족대결의 과거와 결별하고 통일위업실현에로 인생전환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1993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에게 민족단합의 대강으로 되고있다.

이 강령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을 대단합과 통일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글은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 훼방군의 객적은 언동

6자회담재개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속이 뒤틀려 지각없이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일본외상 오까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재개문제에 부정적인 립장을 표시하였다. 그는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6자회담의 《조기재개는 곤난하다.》느니, 우리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있다.》느니 뭐니 하고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잡소리들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6자회담을 파탄시켜 조선반도비핵화를 가로막고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일본의 너절하고 치졸한 술책으로부터 출발한 횡설수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천안》호사건은 철두철미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한 반공화국모략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일본에 명백히 상기시키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이 문제해결에 코를 들이밀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저 관망자로서 구경만 하면 될것이다.

일본이 푼수없이 아직까지 이 문제를 입에 올리며 설레발을 치는것은 미국에 아부굴종하여 낯내기를 해보려는 하수인의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6자회담재개문제에 대해 말해보자.

6자회담은 일본이 재개해야 한다면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면 안하는 그런 회담이 아니다. 조건이 성숙되고 때가 되면 일본이 구태여 수고로이 삐치지 않아도 회담은 당연히 열릴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 않게 될것이다.

일본이 분별이 있고 지각이 있다면 이런것쯤은 알아야 할것이다.

지나온 6자회담 전과정을 보면 일본은 그야말로 거치장스럽고 쓸모없는 존재였다.

6자회담을 진행하는 근본목적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따라서 회담탁에는 마땅히 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이미 확정된 각자의 의무들을 리행하기 위한 대책안들이 올라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회담탁에 기본의제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뚱딴지같은 보따리를 펼쳐놓으면서 회담에 복잡성만을 조성하군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태공하여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장애와 혼란을 가져오고 말썽만 일으켰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일본이 6자회담에 과연 무엇때문에 참가하며 또 구태여 일본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만 잔뜩 불구어놓았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들에게 일본에 대한 아주 명백한 견해를 주었다. 그것은 일본이 6자회담에 불필요하게 끼여들어 그 진전을 가로막고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훼방군, 불청객이라는것이다.

일본외상의 이번 망발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였댔자 일본이 별로 발언권도 없지, 6자회담의 한 성원이라는 낯은 내야겠지 하니 주책머리없고 삐뚤어진 언행들을 두서없이 하고있는것이다.

충고하건대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도 체면도 없는 일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분주탕을 피우기 보다는 편안치 않고 소란스러운 제 집안일에나 신경을 쓰는 편이 나을것이다.

지금 민주당정권에 대한 일본의 민심은 나날이 나빠지고있다. 하또야마정권시기에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과 한 약속을 뒤집어엎어 민심의 말밥에 올랐고 지금은 간 나오또정권의 소비세인상문제로 하여 내부가 뒤숭숭하다. 국회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것은 일본민심의 응당한 판결이다.

한편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민주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밀어내지 못해 별의별 권모술수를 다 쓰고있다.

정국이 어수선하고 정치지진이 태동하고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주제에 일본이 제 집안일을 제쳐놓고 6자회담재개를 차단시키려고 객적게 놀아대고있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여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6자회담에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자기의 처지를 똑바로 알고 다른 일에 헛눈을 팔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경 수

## 제17차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

【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웰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 참가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박의춘외무상이 23일에 연설하였다.

단장은 연설에서 아세안은 2015년까지의 공동체건설로정도와 헌장리행에서 의의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아세안이 보다 영향력있는 평화세력, 발전세력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는 최근 전쟁접경에 이른 조선반도의 폭발적인 정세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였을뿐아니라 우리의 경제강국건설에 극심한 저애를 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것을 전체 인민과 온 세계앞에 선언하였다.

지난해에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에서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여 경제활성화의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화국은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것을 총적목표로 삼고 모든 힘을 집중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생산과 건설단위들을 찾고찾으시며 현지지도의 강행군을 단행하고계신다.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를 늘이며 경제를 활성화할데 대한 중요정책적결정들이 채택되여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무한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이 요구되는 때에 돌연히 이 모든것을 파괴하는 정세가 조선반도를 엄습하였다.

단장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우리 공화국과 련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우리 검열단의 파견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사건을 반공화국깜빠니야에 최대한으로 리용한데 대하여 단죄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천안》호사건과 관련하여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의장성명이 나오게 된것도 바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놓고서들렀기때문이라고 그는 까밝혔다.

그는 남조선당국이 오히려 우리 보고 《사죄》하라고 하는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하면서 현 단계에서 사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고 덤벼치며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점에로 몰아간 남조선당국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아세안성원국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립장을 밝히고싶다면 문제해결의 가장 초보적이고 선차적고리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것을 외면한 그 어떤 립장도 무원칙한 패당싸움으로, 위선으로 될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마련해놓은 전쟁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조선반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세번째 전쟁터로 화하였을것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의 평화가 깨여지지 않고 유지되여온것은 아세안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아세안성원국들은 일부 군사동맹국들의 무원칙한 패당놀음에 가담하지 않고 공정하고 건설적인 태도와 립장을 견지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성숙한 지역공동체로서의 공정한 역할을 보여준 아세안의 반응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단장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요구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공화국의 력사적사명이며 공화국정부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는 길이다고 강조하였다.

당면하여 공화국정부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올해는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기간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며 이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전협정당사국이며 조선반도핵문제의 당사자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한 언제가도 호상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비핵화는커녕 6자회담자체도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

합동군사연습들과 무력시위는 신뢰조성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군비경쟁과 대결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의 재개와 조선반도의 평화협정체결,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아세안의 리상과 지역연단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옳은 방향이라고 간주한다.

우리는 연단성원국들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근원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고 평등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고무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에 따라 지역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다할것이다.

# 몬까다에서 울린 혁명의 첫 총성

1953년 7월 26일은 꾸바인민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력사적인 날이다.

이날 꾸바의 혁명가들은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도밑에 손에 무장을 잡고 반동적인 친미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혁명의 첫 총성을 울리였다.

당시 미제의 지지비호를 받는 바띠스따독재정권은 파쑈테로통치로 꾸바인민들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1950년대초 꾸바에서는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무장폭동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있었다.

꾸바혁명가들은 1953년 7월 26일 새벽 싼띠아고 데 꾸바시 교외에 있는 반동군대의 몬까다병영을 습격하기로 하였다. 이 병영은 당시 바띠스따독재정권의 두번째로 큰 군사요새였다. 이날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도밑에 꾸바의 항쟁투사들이 몬까다병영을 습격하면서 울린 혁명의 첫 총성은 꾸바인민의 무장투쟁의 봉화로 되였다. 이를 계기로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꾸바혁명가들의 무장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꾸바인민의 반바띠스따투쟁은 전민항쟁으로 확대강화되였으며 그것은 마침내 친미독재정권을 꺼꾸러뜨리고 꾸바혁명의 승리를 안아왔다.

지금으로부터 57년전 몬까다에서 울린 혁명의 첫 총성!

그것은 자유와 해방, 정의와 진리를 위한 꾸바혁명의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으며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꾸바인민은 혁명승리후 몬까다의 정신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사회주의진지를 강화하여왔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의 서반구에서 반제자주,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꾸바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다. 그들은 꾸바혁명을 말살하려고 꾸바를 《테로지원국》명단에 올려놓고 무력간섭과 파괴암해, 경제제재와 금융봉쇄 등 온갖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오고있다.

꾸바인민은 적들의 반꾸바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며 정치경제력과 국방력을 비롯한 국력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얼마전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라울 까스뜨로동지는 어느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꾸바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자면 방위력을 부단히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군사훈련을 통해 방위체계를 더욱 완비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과 서방이 《인권개선》이라는 위선적인 간판을 내들고 꾸바에 대한 압력책동을 강화하면서 수십년이래 가장 악랄한 반꾸바선전을 벌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유엔주재 꾸바상임대표는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정부가 저들의 방송국들을 통하여 사실을 외곡, 날조한 반꾸바방송을 매주 장시간 내보내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3 000만US$이상의 자금지출을 승인하였다고 폭로하고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전진시켜나가려는 꾸바인민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인민은 자주와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는 꾸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몬까다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전진과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꾸바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라 명 성

오늘의 세계

#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전 중국의 호금도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소집한 서부대개발사업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서부대개발전략을 철저히 실시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서부대개발전략을 철저히 실시하는것은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당과 전국이 서부대개발전략을 철저히 실시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부대개발을 힘있게 추진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국당과 정부가 나라의 서부지역의 경제적발전과 사회적안정을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천, 운남, 청해, 중경, 티베트, 신강, 내몽골 등 12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속해있는 서부지역은 면적에 있어서 국토총면적의 71.5%에 달하며 주민수는 전국총인구의 27.5%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액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몫은 17.3%에 불과하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중국당과 정부는 서부지역 개발을 주요과업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력사적으로 워낙 사회경제적기반이 약한것으로 하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격차는 날로 더욱 커갔다.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서부지역 발전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절감한 중국당과 정부는 1999년 11월에 진행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연해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서부지역을 개발할데 대한 전략적결정을 채택하였다.

서부대개발전략이 제시된 후 중국당과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인재 및 기술자양성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국가의 조치에 따라 서부지역의 많은 공장, 기업소일군들이 동부지역에 가서 경제관리와 자원개발 등 각 분야의 교육을 받았으며 농촌들에서는 기술학습회와 농민학교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농민들에게 농촌경리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과 기술을 배워주었다.

서부대개발전략이 제시된 후 지난 10년간 서부지역에 대한 국가적지원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 지역에 대한 국가의 투자액은 년평균 22.9%로 증가하였으며 교통망건설에 투자한 자금만 하여도 그전의 50년간 투자액에 비해 5.4배로 장성하였다.

결과 서부지역에서 전반적사회경제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인민생활이 눈에 띄게 향상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였다.

지난 10년간 서부지역에서의 년평균 경제장성률은 12%에 달하였으며 농촌의 절대빈곤자수는 1998년의 5 731만명으로부터 2008년에는 2 64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정책과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근면한 노력이 안아온 응당한 결실이다.

중국의 서부지역 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 자기 고장의 놀라운 모습을 두고 못내 기뻐하면서 이 모든 성과는 공산당의 령도가 없고 사회주의가 없으면 50년, 100년이 걸려도 거둘수 없는 위대한 성과이라고 말하고있다.

오늘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새로운 10년기를 맞이하고있다.

중국당과 정부는 수십개의 소수민족이 살고있는 서부지역이 안정되면 전국의 안정도 강화되고 이 지역이 부유해지면 온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10년간 서부대개발전략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서부지역에는 현대적인 에네르기생산기지, 자원정밀가공기지, 설비제작기지, 전략적인 신흥산업기지들이 건설되게 된다.

서부대개발전략을 실현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사이의 균형적발전을 이룩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앞당겨 건설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정책과 조치들은 중국인민의 창조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 강점자, 《중재자》의 량면주의적처세술

최근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가 팔레스티나측에 《평화》를 위한 직접회담을 진행할것을 제의하였다. 팔레스티나는 네타냐후의 제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한것은 네타냐후의 직접회담제의가 결과 속이 다른 강점자의 파렴치한 처세술에 불과하기때문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 12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 동부꾸드스에서 수십동의 유태인살림집을 건설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설을 바라는 팔레스티나인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와 같다. 팔레스티나사람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하고있는 꾸드스를 자기들의 영원한 수도로 간주하고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수도는 나라의 얼굴이고 심장이다. 더우기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수난많은 인민에게 있어서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어려있고 민족의 넋이 깃든 수도에 대한 감정은 남다르다.

하기에 팔레스티나사람들은 수십년동안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발굽밑에 짓밟혀 신음하면서도 언제 한번 자기들의 운명과 꾸드스의 운명을 떼여놓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동부꾸드스에서의 유태인살림집건설책동에 미쳐날뛰는것은 지구상에서 팔레스티나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고 저들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를 영원히 가로타고앉으려는 흉심을 품고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목적밑에 이스라엘은 꾸드스의 유태화를 떠벌이면서 이 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을 마구 추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령토팽창에 환장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티나와의 회담은 사실상 그들이 바라는바가 아니다. 수십년동안 비법적으로 남의 나라 령토를 타고앉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와 회담하는 경우 저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것이라는것을 타산하고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와의 회담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고있다. 그들이 표방하는 팔레스티나와의 그 무슨 회담이란 본질에 있어서 팔레스티나문제, 중동평화보장에 《관심》이 있는듯이 국제사회를 기만, 우롱하고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위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 5월부터 미국의 《중재》밑에 진행되고있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간접회담도 명색이 회담이지 실상은 아무런 의의도 없는 시간보내기일따름이다.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면 쌍방이 호상 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회담중재자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립장에 서서 대화상대자들사이의 의견불일치와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서 긍정적역할을 놀아야 한다.

그러나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간접회담에 대한 미국의 《중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심히 결여되여있다.

이스라엘이 간접회담기간 동부꾸드스를 비롯한 팔레스티나강점지역에서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계속 벌리는것과 함께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는 사실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기습작전을 벌려 18명을 체포하는 야수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여러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팔레스티나인들을 애당초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야수들의 만행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무고한 팔레스티나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있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간접회담을 《중재》한다는 미국의 량면주의적인 태도이다.

미국은 시종일관 이스라엘의 편역을 들면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담중재》의 미명하에 저들의 리속만을 챙기고있다.

지난 5월말에 감행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로 향하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공격행위에 대해 온 세계가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였을 때에도 유독 미국만이 불망나니들의 후안무치한 인도주의유린행위를 음으로 양으로 비호두둔해나섰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 공정한 회담이 진행될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간접회담이니, 직접회담이니 하며 마치나 저들이 팔레스티나문제해결에 《큰 관심》이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고있다. 현 미행정부는 이러한 처세술을 통해 이전 부쉬정권시기 아랍세계에 흐려진 미국의 영상을 개선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권을 유지확장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안팎이 다른 미국의 본심을 잘 알고있는 팔레스티나사람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은 그들이 《중재》한다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간접회담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절대다수의 팔레스티나사람들은 미국이 편견적인 립장에 서서 《중재》하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간접회담이 실패할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동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와의 간접회담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이스라엘이 운운하는 직접회담이란 그야말로 지상공론에 불과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를 기만, 우롱하는 량면주의적인 처세술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팔레스티나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 할바를 똑바로 해야 한다.

중동평화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

본사기자 서 남 일

ㄱ-01133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